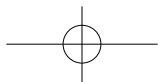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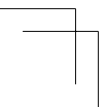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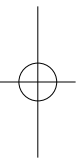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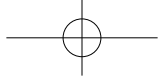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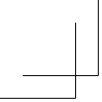


**TAEIN**  
**30TH ANNIVERSARY**  
**1987 - 2017**

한미연합비행  
**표의 30년**



**T A E I N**  
**30TH ANNIVERSARY**  
**1 9 8 7 - 2 0 1 7**

발간사





# 회사는 가족과 같아야 한다

태인이 이제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등 푸른 청년기를 지나 이제 좀 더 완숙해진 장년으로 넘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단단한 기업 태인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모두 태인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입니다. 태인 인(人)들의 회사에 대한 사랑과 성원, 불굴의 도전정신과 창조적 지혜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오늘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의 시련과 고난을 함께 넘어 왔습니다. 거친 길을 헤쳐 오면서 숱한 시련과 고난의 파고를 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솔하게 찾아왔던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로지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단련된 우리 태인은 이제 성취와 영광으로 이어진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태인 30년사를 발간하는 것은 역사의 순간들을 생생히 기록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기업의 역사를 보존함으로써 자기성찰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를 한데 묶어준 태인정신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원동력으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30년이라는 역사의 한 매듭을 짓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역사는 미리 보는 미래라고 합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태인의 30년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태인이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태인 인(人)들의 자기희생과 헌신으로 쌓아 올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가는 과정에서 좌표를 잃을 때마다 30년 역사에서 길을 찾고 용기를 얻는 든든한 길잡이로 삼았으면 합니다. 30년사의 행간마다 녹아 있는 태인의 과감한 도전과 뜨거운 숨결은, 미래를 밝혀 주는 등불이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역사와 전통을 창조해 나가는 태인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회사는 가족과 같아야 한다”는 걸 신념으로 삼아 왔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으로서 회사의 뿌리를 더욱 튼실히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추구해 나가시다. 그럼으로써 태인의 구성원 모두가 풍요로운 삶에 더 크게 다가설 수 있도록, 서른을 맞은 이 시점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삼아 도약합시다.

태인 3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충청북도와 지방자치단체, 언론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7월 주식회사 태인 회장

이인정

축사



#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는 태인이기를

청주산업단지의 자랑인 주식회사 태인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사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162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인은 창립 이래로 으뜸 경영과 최고의 품질로 삼십이립(三十而立)의 입지를 다지며 충북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이인정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고로 이룬 성과라고 생각되어 깊은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태인 가족 여러분!

현재 기업체 366곳이 입주해 있는 청주산업단지는, 2016년 생산액 13조1245억여 원, 수출 67억 달러, 2만7400여 명의 고용인원을 자랑하는 충북 최대의 산업단지입니다. 이런 청주산업단지의 힘찬 에너지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첨단의료보건산업단지로 뻗어갔으며, 이제는 청주 송정동에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로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충북경제를 키우고 발전시킨 원동력은 태인 처럼 열심히 지역경제를 견인해온 강소기업들로,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날 청주산단과 충청북도 번영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태인은 사원들의 복지와 후생에 힘쓰며,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몸소 실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선정한 충북지역 '착한기업 1호'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태인을 우량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태인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하고 2020년 전국대비 충북경제 4%를 달성할 수 있도록 태인 가족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태인의 3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50년, 100년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7월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축사



# 태인 30주년 사사집발간축사

태인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립 이래 반도체 및 전기차단기 전문제조 업체로서 지속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창조적 혁신과 도전이 계속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인의 슬로건은 '사람이 중심이다' 입니다. 이는 이인정 회장님께서 산악인으로서 히말라야 등반을 통해 얻은 개인적인 신념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품질경영과 기술혁신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태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체육 꿈나무 지원, 저소득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 태인 임직원들이 동참하는 충북 착한기업 1호, 이인정 회장님의 '아너소사이어터' 가입 등 태인의 사회공헌 활동은 나눔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서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틀의 역할 뿐 아니라, 우리사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태인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태인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우리사회의 모범적인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권홍수

축사





# 미래 100년을 위해 힘찬 도약을...

우리 지역의 대표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태인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주년을 함께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그동안 이뤄 놓은 눈부신 성장을 보니 30주년이 더욱 뜻 깊게 생각됩니다.

1987년에 창업한 태인은 품질 제일주의의 가치 아래 힘찬 전진을 거듭해 오며,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연구 개발을 통한 뛰어난 기술력으로 누전차단기와 메모리모듈 업계를 선도하며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신규투자과 사업 확장을 통한 매출신장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인재를 고용하면서 충북과 함께 성장해 오고 있으며, 아울러 도내 착한기업 1호로 선정되는 등 불우이웃 돕기,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감 노력,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및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으뜸기업입니다. 특히 1990년부터 매년 이어온 체육장학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충북의 체육 꿈나무들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희망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태인은 상공업 진흥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정부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받았고, 2016년에는 자랑스러운 충북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귀감이 되어 주시고, 더욱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역경제 성장과 함께해 온 저희 청주상공회의소도 앞장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소임을 다해 나가겠으며, 태인을 포함한 모든 회원기업들의 성공 비즈니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30세는 뜻을 확고히 바로 세우고 기반을 닦는다고 하여 이립(而立)이라고 합니다. 태인의 미래 100년을 위한 힘찬 도약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30주년 사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7년 7월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노영우

# CONTENTS

발간사	0
축사	0

<b>사진으로 보는 태인의 어제와 오늘</b>	
아름다운 동행, 태인의 오늘	14
태인 30년의 발자취	26

## PART 1 이립(而立), 서른 살의 태인

### 제1장 (주)태인의 창업

1. 산업의 혈액, 전기	67
2. 전기사업부의 탄생	77
3. 태인, 첫 향해의 닻을 올리다	84
4.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한 본사 사옥건설	88
5. 30년을 이어온 인연, LS산전	92
6. IMF와 한국, 그리고 태인	99
7. 위기와 극복	106
8. 적극적인 태인의 대응	111
9. 품질이 경영이다	115

### 제2장 새로운 도전, 반도체 사업

1. 산업의 쌀, 전자	125
2. 전자사업부의 탄생	130
3. 25년을 이어온 인연, SK하이닉스	141
4. 비온 뒤, 땅은 더 굳어진다	154
5. 철저한 준비가 가져다 준 열매	160
6. 무결점만이 생존이다	173

### 제3장 미래를 위한 준비

1. 경영기획실	183
2. 경영지원팀	186
3. 자산운용팀의 활동	187
4. 태인 자산운용 업무 10년	191

## PART 2 희망을 꿈꾸는 태인 30년

### 제1장 품질경영과 혁신

1. 인사의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	203
2. 합리적인 표준으로 무결점 실현	210
3. 정확한 정보와 효율적 공유	216
4. 표준화로 가야하는 이유	221
5. 태인의 보유특허 및 인증현황	226
6. 태인의 수상현황	231

### 제2장 태인의 경영철학

1. 창업자 이인정 회장의 경영이념	235
2. 사훈과 경영목표	241
3. 성실납세기업 태인	244

### 제3장 함께 꿈꾸는 사람들

1. 태인 사람들	249
2. 태인 사람들의 활동	252
3. 태인과 함께 해 온 협력회사	260

### 제4장 태인의 사회공헌

1. CSR 경영	267
2. 착한기업	272
3. 태인체육장학금	273
4. 나눔의 리더십	285



PART 3 자료로 보는 태인

연표	292
태인의 상징 마크	296
30주년 기념 마크	297
서식자료	300
태인이 받은 상	301
태인의 역대 기념품들	307
태인의 체육장학금 수여식	310
태인 우수사원 해외연수	316
태인의 복장들	318
역대 생산량	320
태인의 협력사들	321
공장조직도	322
편집후기	324

태인, 서른 가지 이야기 - 인터뷰

1. 전기사업부 추영애 사원 \_ 태인, 여성이 힘차게 일하는 회사
2. 전기생산부 이용학 이사 \_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지요.”
3. 전기사업부 박경화 사원 \_ 삶의 진솔함은 희망
4. 전기사업부 임미숙 사원 \_ 작은 것에 만족하는 자족의 지혜
5. 전기사업부 지명환 계장 \_ “태인은 정이 넘치는 회사입니다.”
6. 전기사업부 김현승 반장 \_ 부부싸움을 할 수 없는 이유
7. 전기사업부 김순자 사원 \_ “건강하다는 증거 보실래요?”
8. 전기사업부 염현태 사원 \_ 긍정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
9. 총무부 지형진 주임 \_ “나는 미래의 사장입니다.”
10. 전자사업부 변경순 사원 \_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11. 전자사업부 유운상 반장 \_ 무결점, 깨끗함에 도전하라!
12. 전자사업부 이영훈 반장 \_ 딸 바보 아내 바보
13. 전자사업부 전은옥 사원 \_ 잔소리꾼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14. 전자사업부 구현우 주임 \_ 사내커플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15. 전자사업부 김하경 사원 \_ 어머니에게 드린 첫 봉급
16. 전자생산부 배상호 부장 \_ “주문량의 100% 소화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17. 김재택 사장 \_ “지난 삼십 년, 어제 같습니다!”
18. 자산운용팀 송휘량 팀장 \_ 우리의 역량이 커 가는 만큼 태인의 힘도 커가는 것
19. 이상현 전무 \_ 積土成山 작은 것이 모여 산을 이룬다
20. 전기사업부 김미희 사원 \_ “일의 성취감은 돈으로 살 수 없죠.”
21. 전산관리 지창구 과장 \_ 전산관리는 태인 효율화의 첫 걸음!
22. 전자사업부 신승은 차장 \_ “나노미터(nm)를 아시나요?”
23. 전자사업부 김기성 부장 \_ IT기술의 최선봉, 변화를 따라가다
24. 전자사업부 유우성 과장 \_ “총각에서 두 아이 아빠가 되었네요.”
25. LS산전 동반성장팀 김기복 부장 \_ 협력회사는 LS산전 제2의 사업장.  
육성개념보다 이제는 확장개념
26. 총무부 남동희 부장 \_ 조직은 오케스트라다!
27. 전기생산부 협력회사/신광전자 김종수 사장 \_ 동반성장의 형제로서 감사하는 마음
28. 전기생산부 협력회사/화인텍코리아 윤재기 사장 \_  
고객 니즈에 맞추는 스마트공장을 꿈꾼다
29. 2017 태인체육장학금 수혜자 임예림 \_ “스카우트 제안을 기다려요.”
30. 경영지원팀 김중화 팀장 \_ “태인의 따뜻한 동행에 함께 합니다”

# 三十而立

아름다운 동행

태인 30년

---

**사진으로 보는  
태인의 어제와 오늘**

---



태인의 현재

아름다운 동행, 태인의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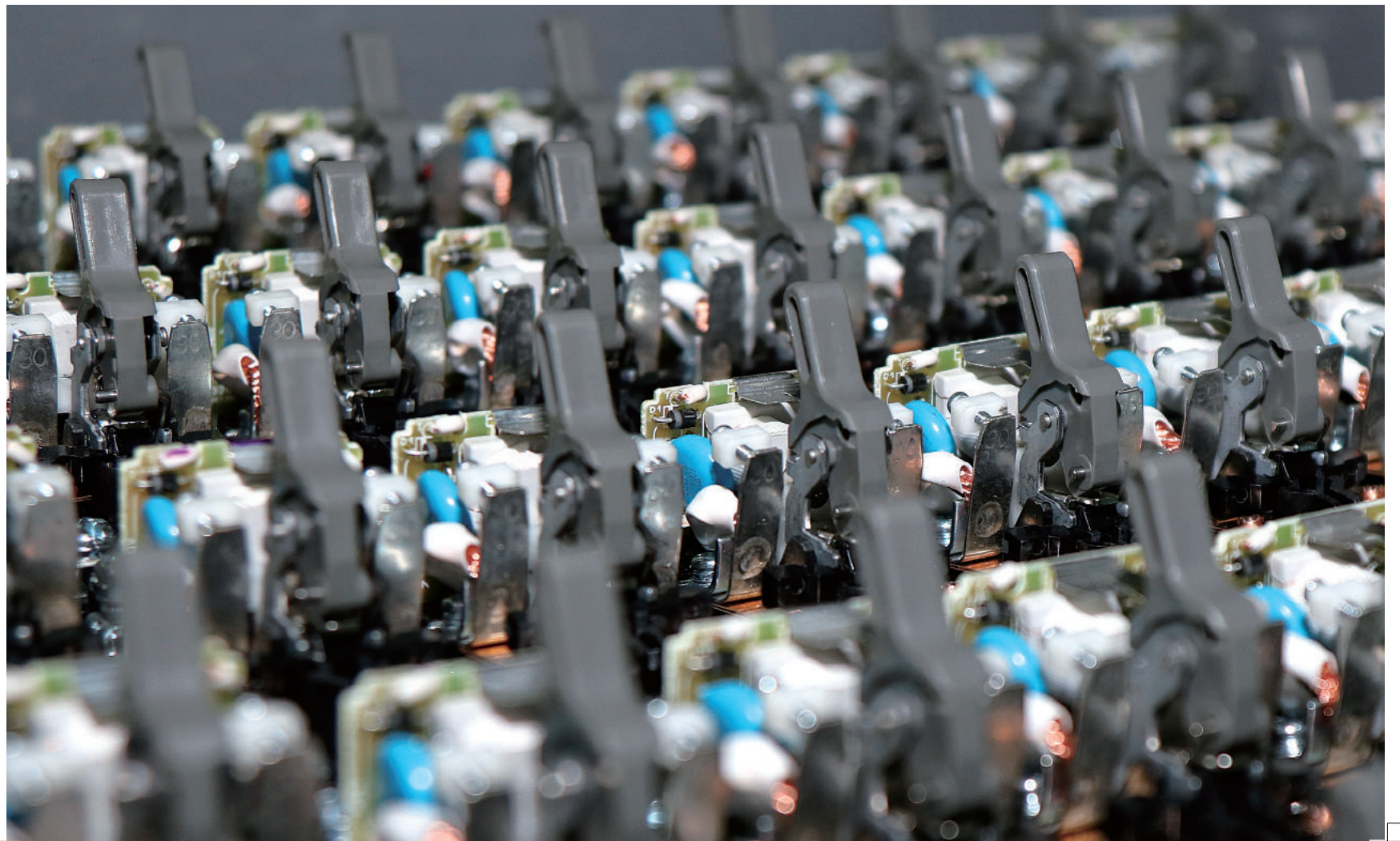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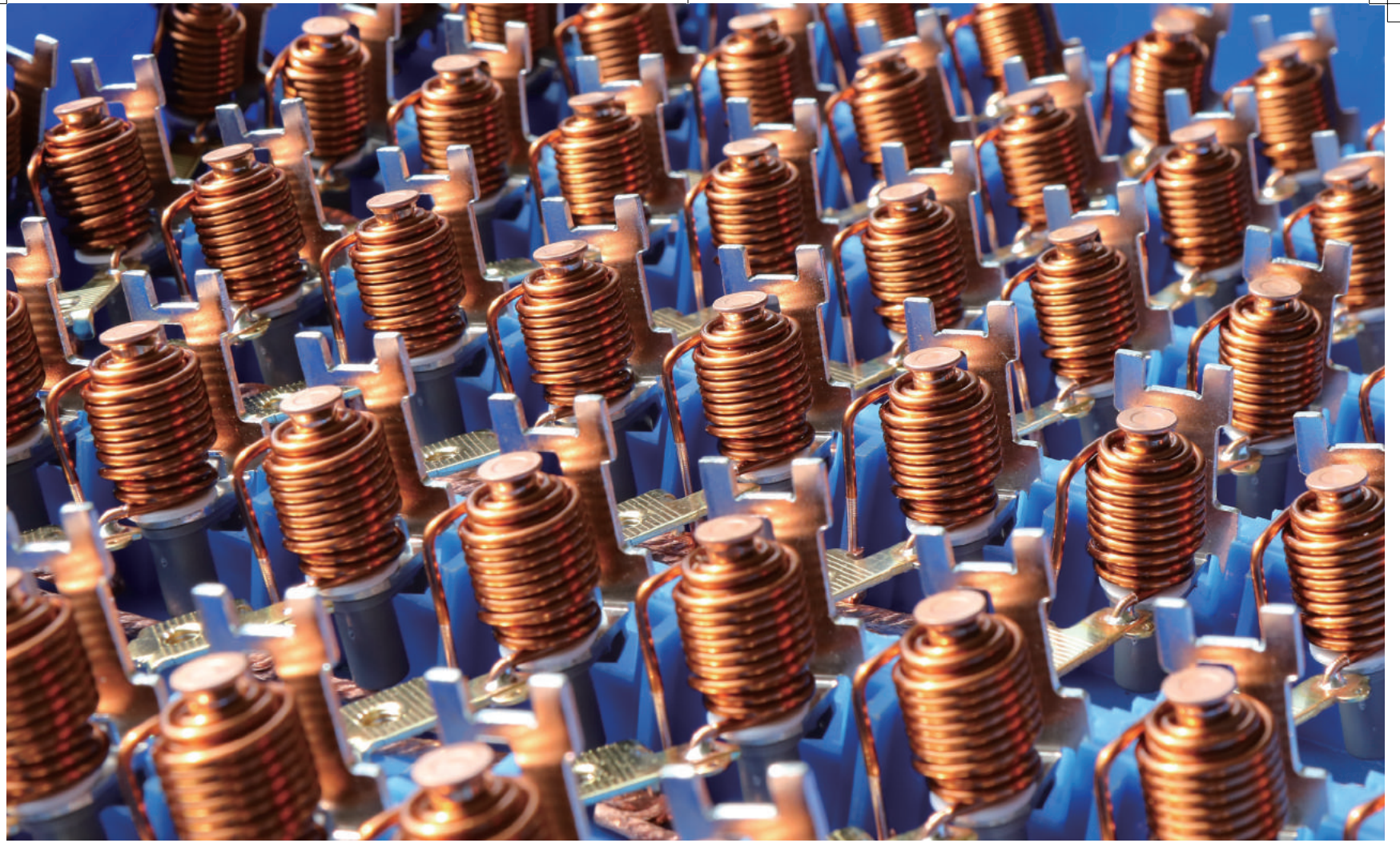
창립 30주년을 맞은 태인은 366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청주산업단지의 으뜸기업으로 성장했다.  
 아울러 사원들의 복지와 후생뿐만 아니라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에도 앞장서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선정한  
 '충북지역 착한기업 1호'로 선정되었다.



최고의 품질을 위한 태인의 노력은  
 창사 이래 지속되어 왔다.  
 품질이 태인의 미래라고 믿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총아다.  
 태인은 1992년부터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PC와 노트북컴퓨터  
 그리고 서버용 메모리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2017년 4월 29일 속초 산악박물관  
4층 '하늘정원'에 오른  
태인의 전 직원들.  
창립 30주년 여행을 즐기며  
추억을 만들고 있는 웃음 배경으로  
설악산 울산바위가 우람하다.